

# 지방의회 원구성 해당행위자 페널티

### 2016년 광주시·전남도·광산구의회 일부 후보자 겨냥

### 민주,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과정에 부적격 기준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 '지방의회 구성·운영 과정에 당론을 현저하게 위배한 행위'를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켜 이에 해당되는 일부 예비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에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개정했다.

민주당은 규정 제12조 제8항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 당정협력 일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배한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적용 예를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검증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무위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구성·운영에 있어 당론을 현저하게 위배한 행위'가 포함됐다. 이는 중앙당이 지난 2016년 광주와 전남지역 등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일부 후보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 광

산구의회 등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음에도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장 자리를 내주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광주시의회에서는 하반기 원구성 당시 13대 8의 수적 우위에도 의장직을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게 내줬다. 전남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 숫자가 33명으로, 국민의당 의원(22명) 숫자에 비해 11명이 더 많은데도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 패했다.

광주 광산구의회에서는 정족수 1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9명으로 과반을 넘었지만, 국민의당 의원에게 의장 자리를 내줬다. 반면,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을 빚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앓기도 했다.

이처럼 원구성 과정에 다른 당 후보를 돕는 행위가 발생한 배경에는 당론보다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개인의 욕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더민주 후보를 돕도록 한 중앙당 지침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지방의원 11명(시의원 3명, 구의원 8명)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가 비밀투표라는 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지방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까지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배경에는 당시 '해당 행위'를 한 경선 후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후보자 면접 등 경선 과정에 당시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릴지, 일부 '페널티'를 주는 선에 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시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 해당 행위를 한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당이 요구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전남 4곳 기초단체장 공천 사실상 확정

### 광양 김재무·보성 김철우·곡성 유근기·완도 신우철

광양시장 김재무, 보성군수 김철우, 곡성군수 유근기, 완도군수 신우철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4명의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후보 공모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2개 선거구 중 4곳은 단수 후보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단수 지역은 광양시장 후보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 보성군수 후보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 의장, 곡성군수 후보 유근기 군수, 신안군수 후보 신우철 군수 등이다.

이들은 지난 7일 심사와 면접을 했고, 4명 모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천 확정은 16일 이뤄진다.

나머지 18곳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윤곽도 드러났다. 경선 지역과 후보는 ▲순천시장 허석·조종훈 ▲화순군수 이형권·구중곤 ▲영암군수 전동평·김연일 ▲영광군수 이동권·김준성 ▲장성군수 김

수공·윤시석 등 5곳이다.

신청자가 많아 컷오프를 거쳐야 하는 지역과 공천 신청자는 ▲목포시장 조요한·최기동·김종식·김한창 ▲여수시장 김유화·권세도·주철현·권오봉·김순빈 ▲나주시장 강인규·장행준·이상계·정순남·이윤범 ▲담양군수 최화상·최형식·박근조 ▲구례군수 왕해전·김순호·최성현·이장호 ▲고흥군수 송형곤·김학영·공영민·장세선 ▲장흥군수 김현복·박병동·김성·조재환 ▲강진군수 강진원·이승욱·장경록 ▲해남군수 이길은·김석원·윤재갑·김왕근 ▲무안군수 정영덕·홍규표·김산·이동진 ▲함평군수 김천희·윤한수·김성호·김성모·박래욱 ▲신안군수 박석배·천경배·김승구·박우람·임흥빈 ▲진도군수 이동진·박연수·박인환·주선종 등이다.

기초단체장 공모에는 22명 정원의 68명이 응모해 3.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역의원 단수 신청자는 ▲목포1 박문욱 ▲목포5 전경선 ▲순천1 김기태 ▲순천3 서동욱 ▲나주1 이민준 ▲나주2 최명수

▲광양1 이윤재 ▲보성1 임영수 ▲보성2 이동현 ▲해남2 조광영 ▲영암1 우승희 ▲완도1 이철 ▲진도 서재완 등이다.

이들도 심사·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천장을 거머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들은 10일 까지 심사와 면접을 한 뒤 16일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다.

광역의원 공모에는 의원정수 52명에 113명이 응모해 2.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ARS투표(50%)와 안신번호선거인단 ARS투표(50%)다. 광역·기초의원은 권리당원 ARS투표 100%로 결정한다.

전남도당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6·13 선거 현장

### 전남지사 후보

### 신정훈 "전남농업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8일 "전남농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신 예비후보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고향인 보성군 웅치면 부춘마을을 발원으로 "대한민국 농업1번지인 전남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어업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혁신적이고 전남다운 농정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10대 농어업공약'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전남형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청년 창업농 수당 신설 ▲지역급식체계 혁신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1억 부농·어가 2만가구 만들기 ▲지역 푸드플랜 구축과 로컬푸드 시스템 대폭 확대 등 중점 추진을 약속했다.

### 장만채 "광양시, 남해안 물류 중심도시 육성"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8일 광양시를 남해안 물류 신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광양은 호남권 중추기능 중심지로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녹색산업벨트·지식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해 광양의 산업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첨단화학 신소재 부품, 모뎀 실증화 사업, 신소재 관련 연구사업 활성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했다.

그는 특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수 유치에 통해 지식융합형 캠퍼스 구축과 철강산업 고기능 기술인력 양성, 지역과학기술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확충 등을 약속했다.

### 광주시교육감 후보

### 이정선 선거사무소 개소 본격 선거전 돌입



이정선(59·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서구 화정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광주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교육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반드시 광주교육을 혁신하는 '첫 번째 혁신교육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지금 광주교육은 '시민에게 교육 권력을 내어주는 혁신'과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주권자인 시민이 광주교육의 중심이 되는 '광주시민교육지원장'을 신설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김명진 "靑 경호처, 이회호 여사 경호 환영"



김명진 민주평화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회호 여사 경호를 맡도록 한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고향의 이회호 여사가 영부인 시절부터 함께 해 온 친숙한 청와대 경호팀의 보좌를 받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를 사랑하는 호남 지역민들도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문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쓸데없는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으며,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벗어난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박혜자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 잘한 일"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전국의 청년실업률이 1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조기 추경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편성 결정을 환영했다.

박 후보는 "상성전지의 백색가전 철수, 급호 타이어의 경영불안, 기아자동차의 수출 감소 등으로 고용위기에 몰리지 않게 광주지역의 청년 실업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광주지역 청년실업은 IMF 직후나 2012년 외환위기 사태에 못지않은 지난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광주지역 7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경제와 지역청년들을 위한 대응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갑석 "문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지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의 신속한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이라며 "잘 만들어진 개헌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재의결 찬반 팽팽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한 시의회 재의결을 앞두고 찬반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일반 감사의 한계 극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는 시민, 장애인 단체와 중복·비효율 감사를 하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공공공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일반연맹 광주지역일 반노동조합 등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일반감사의 한계 극복을 지향한다"라며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도 시행하는 만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이미 자치구와 정부로부터 감사 받고 있는데 시까지 감사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반발 중이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